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월 29일(월) 1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1. 28.(월)	담당부서	통상정책총괄과 FTA이행과 구주통상과
담당과장	강감찬 과장(044-203-5620) 신지현 과장(044-203-5760) 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	담 당 자	조영제 서기관(044-203-5619) 고장원 서기관(044-203-5764) 이경민 서기관(044-203-5666)

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

- 브렉시트 대응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.28.(월)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**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**를 개최하고 **브렉시트 대응방안**을 논의했다.

<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19. 1. 28일(월) 16:00~17:00 /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(11층)
- **참 석 자** : 산업부(주재: 통상교섭본부장), 외교부, 기재부, 농림부 등 18개 부처
- **논의 안건** : 브렉시트 대응방안 (안건 비공개)

※ 교섭본부장 모두말씀은 공개

□ 오늘 회의는 최근 **영국의 브렉시트**에 대비해 **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을 점검**하고, **대응방안을 모색**하기 위해 개최했다.

○ 특히,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고, 새로운 대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 지는 등 **'노딜 브렉시트'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**에서 위원회가 열렸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**김현종 본부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 **“세계경제 둔화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**이 커지고 있고, 오늘 논의 예정인 **‘브렉시트의 노딜 가능성’도 그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”했다.**

○ **“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최근 감소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**이라며,

통상조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**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**”이라며, “**수출 불확실성 제거**를 위해 **관계부처에서도 적극 대응**해 달라.”라고 주문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**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.**

○ 김 본부장은 지난주 **다보스** 포럼 계기, 한-영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**노딜 브렉시트 상황**에 **대비**한 **임시 조치(emergency bridge)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영국과 공감대**를 형성했었다.

○ 이에 따라 정부는 한-영 자유무역협정 **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**도 **조속히 마무리**하여 **최대한 빠른 시일내**에 **한-영** 자유무역협정이 **발효**될 수 있도록 **추진**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**각 부처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발생에 대비**하여 **상품, 서비스 등 관련 분야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대비방안을 마련**하기로 했다.

□ 한편, **산업부**는 **영국과 유럽연합과 수출동향을 지속 점검(모니터링)**하는 한편, **우리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**하는 등 **지원체계를 본격 가동**하고 있는 상황이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조영제 서기관(☎ 044-203-5619), FTA이행과 고장원 서기관(☎ 044-203-5764), 구주통상과 이경민 서기관(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